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3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대부분의 국가는 꿈꿀 만한 수준의 필리핀(PHL) GDP 대비 부채비율’  
— 세계은행 — page 1-2
- BIR 과세 규정, 방문객의 필리핀 관광 비용 높아 — page 2-3
-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소기업(MSME) 등록 및 증권 수수료 할인 연장 — page 3-4
- 필리핀 중앙은행, ‘그린’ 프로젝트에 대한 상한 대출 한도(SBL) 2028년까지 연장  
— page 4
- 외국인 직접투자, 2025년 10월 거의 40% 감소 – 필리핀 중앙은행(BSP) — page 5
- 투자청(BoI), 바타안과 협력해 반도체 투자 유치 나서 — page 5
- 세계경제포럼, ‘AI 기반 사이버 사기’가 글로벌 기업 최대 위협 경고  
— page 6

### ‘대부분의 국가는 꿈꿀 만한 수준의 필리핀(PHL) GDP 대비 부채비율’ — 세계은행

January 11, 2026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세계은행(WB)은 필리핀의 국가부채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완충 장치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파르 알리카비(Jaffar Al-Rikabi)는 지난주 한 행사 부대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곳(필리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가질 수 있기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3분기 말 기준 63.1%로, 1년 전의 60.1%에서 상승했다.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부채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60%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선으로 70%를 채택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국가부채 잔액이 사상 최대인 17조6,500억 페소에 달한 것이 부채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알리카비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따라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필리핀 재무국은 필리핀 통계청(PSA)이 연간 및 4분기 GDP를 발표한 이후 4분기 GDP 대비 부채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아직 4분기(Q4)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망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매우 지속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UTERS

세계은행은 『필리핀 경제 업데이트(Philippine Economic Update)』 보고서에서 국가부채가 202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부 부채는 2026년에 GDP 대비 62.5%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에는 6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카비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공공부채가 여전히 “지속가능한 수준”이라며, 부채의 대부분이 장기물이며 폐소화 표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부채가 비(非)폐소화 표시이거나 단기 부채라면 변동성이 훨씬 커지고, 국내 충격이 아닌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부채비율이 40%로 낮았지만, 팬데믹 대응과 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채와 부채 상황 비용과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다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카비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적인 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증가하는 이자 지급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보건, 인프라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에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싶지 않겠느냐”며 “최근 몇 년간 증가해온 이자 지출로 예산이 점점 더 잠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부채 상황을 위해 총 2조 100억 페소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1조 600억 페소는 원금 상환에, 9,500억 페소는 이자 지급에 배정됐다. [Cont. page 2]

## ‘대부분의 국가는 꿈꿀 만한 수준의 필리핀(PHL) GDP 대비 부채비율’ — 세계은행

[Cont. from page 1]

알리카비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은행이 2026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을 5.3%, 2027년을 5.4%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2025년)에는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장률은 약 5.1%로 예상한다” 며 “4분기 데이터에 따라 더 약해질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수정된 성장 목표치는 2026년 5~6%, 2027년 5.5~6.5%다.

레예스 타칸당 & Co.(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자문위원인 조너선 L. 라벨라스(Jonathan L. Ravelas)는 2025년 필리핀 경제성장률이 5.3%로 더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월 8일 존 클레멘츠 컨설턴츠(John Clements Consultants, Inc.) 주최 행사에서 “필리핀은 소비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을 갖고 있다. 달력상 ‘ber’ 로 끝나는 달(9월 이후)이 시작되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 이것이 12월 마지막 2주 동안 주요 성장 동력이 됐다” 며 “이는 4분기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라벨라스는 필리핀 경제가 2026년 5.6%, 2027년 5.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 경제기획부 장관은 홍수 통제 사업 관련 부패 스캔들로 인해 2025년 GDP 성장률이 4.8~5%로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경제 당국이 2027년까지의 목표치를 낮췄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실제로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부정적 심리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라벨라스는 폐소화가 향후 3년간 달러당 61~65페소 수준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폐소화는 1월 7일 달러당 59.35페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는 “필리핀은 순수입국이지만, 폐소 약세는 투자 유치 국가로서의 필리핀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11/723553/most-countries-would-dream-of-phl-debt-to-gdp-levels-wb-says/?amp>

## BIR 과세 규정, 방문객의 필리핀 관광 비용 높여

January 13, 2026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Tourism Secretary Christina Garcia Frasco and Finance Secretary Frederick D. Go led representatives from their respective agencies in discussing revenue measures that are affecting tourism stakeholders on January 9, 2026. (DOT photo)

외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BIR)이 최근 발령한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관광부 장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Christina Garcia Frasco)와 재무부 장관 지명자 프레드릭 D. 고(Frederick D. Go)는 2026년 1월 9일 만나 BIR 수익 메모랜덤 서큘러(RMC) 제5-2024호가 관광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 서큘러는 2024년 1월 10일 발행되었으며,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 25%의 최종 원천징수세(FWT)를 부과하고, 서비스가 필리핀 외부에서 수행되더라도 발생 소득이 필리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2%의 최종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한다.

특히, 이 RMC는 필리핀에서 ‘국경 간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해외에서 수행되지만 그 결과가 필리핀에서 사용·적용·소비·

실행되는 서비스를 목록화했다.

관광 분야에서 이러한 비거주 외국 법인(NRFC)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국제 여행사, 그리고 여행 기술 및 예약 기술과 같은 아웃소싱 서비스를 필리핀 기업에 제공하는 외국 파트너가 포함됩니다.

[Cont. page 3]

## BIR 과세 규정, 방문객의 필리핀 관광 비용 높여

[Cont. from page 2]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에 보낸 Viber 메시지에서 프라스코(Frasc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국경 간 서비스가 명확한 분야별 지침 없이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VAT) 모두에 적용될 경우, 세액 정산 의무(gross-up), 이중과세, 그리고 공급업체 비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가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호텔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필리핀 호텔의 경쟁력과 국가의 관광지로서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덜 매력적인 패키지

익명을 요청한 한 호텔 임원은 “이 문제는 작년부터 관광 업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관광부(DOT)가 이미 재무부(DOF)에 제기했어야 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난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OTA(온라인 여행사)가 우리 호텔을 예약할 경우, 국세청(BIR)은 이제 OTA의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알아야 합니다. Booking.com의 경우, 표준 수수료가 20%이므로, BIR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요약하면, 이는 OTA의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OTA는 수수료를 올리게 되고, 이는 필리핀에서 호텔 예약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관광부(DOT)는 관광 운영자의 우려를 추가로 다루기 위해 국세청(BIR)과 함께 기술 작업 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해외 여러 여행 박람회에서 여행 바이어들은 이미 항공료와 호텔 요금 측면에서 필리핀 여행 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BusinessMirror, 2025년 11월 18일, “Foreign buyers renew interest in PHL, but marketing push weak” )

관광부(DOT)는 올해 필리핀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를 **670만 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 단체들의 호소

2024년 2월 13일, 여러 기업 단체는 당시 국세청장 로메오 D. 루마우익 주니어(Romeo D. Lumauig Jr.)에게 공동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외국 기업이 필리핀 고객과 거래할 때, 거래의 세금 비용이 전체 기업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거래가 여전히 외국 기업에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이해 하에 이루어집니다. 세금 비용이 필리핀 고객과 거래할 이유를 정당화하지 못할 경우(예: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외국 기업은 더 낮은 세금 비용이 적용되는 다른 관할지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필리핀 상공회의소, 필리핀 경영자협회, 필리핀 금융경영자협회, 필리핀 수출업자협회** 등 여러 단체가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또한 “NRFC 소득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FWT)를 적용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NRFC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이 FWT로 인해 줄어들고, 필리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본국에서 세액공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2.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지정된 현지 고객이 NRFC가 온전히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정산(gross-up)해야 하고, 결국 NRFC 소득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Image credits: **DOT**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13/birs-tax-rule-raises-cost-of-phl-tourism-for-visitors/>

##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소기업(MSME) 등록 및 증권 수수료 할인 연장

January 13, 2026 | James A. Loyola | Manila Bulletin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소기업(MSME)이 설립 및 증권 등록 수수료에서 2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6개월 연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등록할 시간을 더 확보하고 낮은 비용으로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C는 2026년 제2호 회람(Memorandum Circular, MC No. 2, Series of 2026)을 발행했습니다. 이 회람은 특정 제출 수수료에 대한 할인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EC Chairperson Francis Lim

이번 회람(MC)은 중소기업(MSME)에 제공되는 법인 설립 등록 수수료 20% 할인 적용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증권 등록 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 page 4]

##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소기업(MSME) 등록 및 증권 수수료 할인 연장

[Cont. from page 3]

이번 조치는 또한 발전 및 배전 유틸리티(DU) 회사, 임대 풀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업자 및/또는 관리업자, 농업기업, 병원 등이 SEC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증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2025년 7월 MC 8호를 통해 낮은 수수료가 시행된 이후, SEC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15,425개 중소기업(MSME)에 약 3,450만 페소 상당의 등록 및 제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SEC 프랜시스 림(Francis Lim) 위원장은 “SEC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법인 설립 등록 및 제출 수수료 할인은 준수 비용을 경감하고, 더 많은 기업가가 정식으로 사업을 등록하며 자본 시장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람은 중소기업기본법(Magna Carta for MSMEs, 공화국법 RA 9501)에 따른 자산 규모 기준을 활용하여 MSME를 분류합니다.

법에 따르면, 마이크로 기업(Micro enterprises)은 자산 규모가 최대 300만 페소, 소기업(Small enterprises)은 최대 1,500만 페소, 중기업(Medium enterprises)은 최대 1억 페소까지로 정의됩니다.

할인된 증권 등록 수수료를 이용하려는 신청자는 회사 사장 또는 재무담당 임원이 작성한 MSME 자격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기업 간소화 증권 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 자본금이 최소 2,500만 페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Source: <https://mb.com.ph/2026/01/12/sec-extends-discounted-fees-for-msme-registrations-securities>

## 필리핀 중앙은행, ‘그린’ 프로젝트에 대한 상한 대출 한도(SBL) 2028년까지 연장

January 12, 2026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월요일, 은행들이 단일 차입자 한도(SBL)를 25% 상한선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하여 지속 가능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인센티브를 2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인센티브는 2026년 1월 6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BSP는 성명에서 “은행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을 확대하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2028년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SP는 2023년 발행된 \*\*회람 1185호(Circular No. 1185)\*\*를 통해 금융기관이 “지속가능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기존 3% 지급준비금 규정에서 면제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BSP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Eli Remolona Jr.) 총재는 “BSP는 기후 회복력(climate-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BSP는 더 많은 자금을 친환경 및 지속가능 활동으로 유입시키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발행자와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재생 에너지, 상·하수도 시스템, 친환경 교통, 기후 회복력 인프라 등 적격 활동에 대한 지속적 금융 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국가 적응 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 결정 기여(NDCs), 필리핀 개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과도 부합합니다.

BSP는 또한 기후 회복력 중심 금융(climate resilience-focused financing)에 대한 \*\*위험 가중치 재조정(recalibration of risk weights)\*\*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자금 노출에 대한 건전성 처리가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BSP는 정부 기관, 개발 파트너,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블렌디드 파이낸스(blended finance)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의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6717>



## 외국인 직접투자, 2025년 10월 거의 40% 감소 – 필리핀 중앙은행(BSP)

January 13, 2026 | Nyah Genelle C. De Leon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되는 국내외 악재 속에서 10월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중앙은행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FDI 유입액은 약 6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억 6,700만 달러에서 거의 40%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10개월 누적 FDI는 62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 82억 달러에서 2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BSP의 연말 전망치인 순 유입 75억 달러와 비교하면, 현재까지의 수치는 전망치의 약 83% 수준입니다.

BSP는 “2025년 처음 10개월 동안 주식 자본 투자(equity capital placements)의 주요 출처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였으며, 이들 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8581/foreign-direct-investments-fell-nearly-40-in-october-2025-bsp>*



## 투자청(BoI), 바타안과 협력해 반도체 투자 유치 나서

January 12, 2026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투자청(BoI)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타안 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페리노 S.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통상부 차관 겸 BoI 수장은 성명에서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은 우리나라 상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바타안 주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과 견고한 산업 기반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2025년 1Bataan 반도체 및 전자산업 서밋(1Bataan 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Summit 2025)에서 투자청(BoI)과 바타안 주 간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서밋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BoI는 성명에서 “바타안 주는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인력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필리핀 산업 미래에서 핵심 역할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타안 주 3지구 마리아 안젤라 S. 가르시아(Maria Angela S. Garcia) 의원은 바타안이 반도체 및 전자산업 투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바타안 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 파트너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바타안 주는 주요 경제 회랑과 가까우며,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물류 분야의 진행 중인 투자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BoI는 “이러한 장점과 투자자 친화적 정책, 협력적인 지방정부가 결합되어 바타안을 첨단 제조업의 최적 투자지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타안 주는 투자진흥기관의 존재와 증가하는 입주 기업 수 덕분에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전략적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BoI는 덧붙였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 따르면, 반도체 및 전자산업은 필리핀 상품 수출의 58%를 차지하며, 11월 기준 수출액은 453억 달러에 달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12/723772/boi-bataan-in-tie-up-to-attract-chip-investors/>*

## 세계경제포럼, ‘AI 기반 사이버 사기’가 글로벌 기업 최대 위협 경고

January 13, 2026 | Ricardo M. Austria | Manila Bulletin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은 사이버 공격, 특히 사이버 사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 이를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WEF가 1월 12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망(Global Cybersecurity Outlook 2026) 보고서는 전 세계 사이버 환경이 전례 없는 속도로 더 위험해지고, 정치화되며,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기반 사기가 CEO들의 최대 우려 사항으로 랜섬웨어를 추월했다”면서, 지난해 응답자의 87%가 인공지능(AI) 관련 취약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94%의 기업 리더는 2026년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가 AI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액센츄어(Accenture)와 함께 작성되었으며, 사이버 기반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92개국의 804명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05명의 CEO, 316명의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123명의 기타 임원급(C-suite)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 능력 모두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지정학적 분열(geopolitical fragmentation)이 사이버보안 전략을 재편하고 지역 간 대비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위협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사이버 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 사이버 회복력(cyber resilience)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정, 국가 회복력, 공공 신뢰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적 요구 사항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WEF 제레미 저겐스(Jeremy Jurgens) 총괄이사는 “사이버 위협이 점점 상호 연결되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이버 기반 사기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리더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단순히 위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이버 회복력을 구축하려면 정부, 기업, 기술 제공업체가 협력하여 AI 중심의 세계에서 신뢰와 안정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회복력 격차(resilience gap)가 여전히 넓으며, 기술과 자원의 부족이 시스템 위협을 증가시키고, 불투명한 글로벌 공급망과 확대되는 사이버 역량 격차가 소규모 조직과 신흥 경제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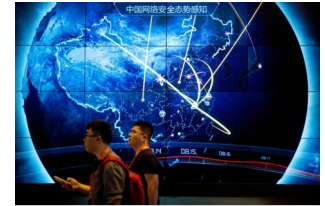
액센츄어 사이버보안 글로벌 책임자 파올로 달 친(Paolo Dal Cin)은 “AI의 무기화,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 시스템 공급망 위협이 기존 사이버 방어를 흔들고 있다. C-suite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전통적 사이버 보호에서 벗어나, 고급 AI와 능동적 AI를 활용한 사이버 방어로 전환하여 AI 기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기업 회복력은 사이버 전략, 운영 연속성, 그리고 신뢰를 결합함으로써 구축되며, 조직이 역동적인 위협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 겸 사이버보안·스마트네이션 그룹 장관인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는 AI가 사이버보안을 재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책임감 있게 활용될 경우 탐지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지만, 오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따라서 정부는 AI가 사이버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점점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각 산업 분야 리더들에게 개별적 노력에서 벗어나 지능정보 공유, 표준 정렬, 역량 투자 등을 통해 모든 조직이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FILE - Attendees walk past an electronic display showing recent cyberattacks in China at the China Internet Security Conference in Beijing on Sept. 12, 2017. (AP Photo/Mark Schiefelbein, File)

Source: <https://mb.com.ph/2026/01/13/ai-driven-cyber-fraud-now-biggest-threat-to-global-business-world-economic-forum-warn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 ALWAYS FINDING WAYS FORWARD

To meet your evolving financial needs,  
we find ways to move with the changing times.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ough any of the channels listed in the  
Consumer Assistance page of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1 Million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and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